

THE WHITE BOOK



THE WHITE BOOK

유한락스

THE WHIT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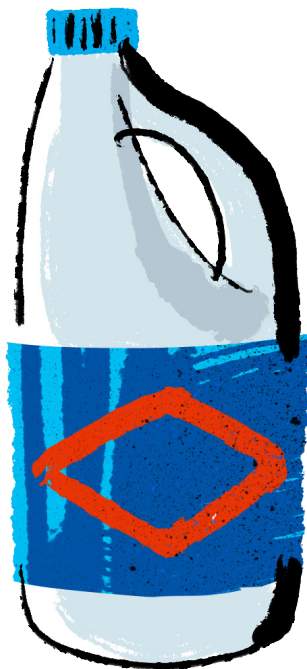








* 해당 화보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실제 용도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THE WHITE BOOK

by 유한락스

FOREWORD	우리 곁의 유한락스	19
CHAPTER 1 : IDENTITY	TIMELINE 락스의 옛날 이야기	22
	FACT CHECK 유한락스, 진실을 알려줘!	32
	WHERE TO USE 락스를 찾아서	44
	INTERVIEW 락스는 누가 만들까?	52
CHAPTER 2 : Q&A	REPORT 숫자로 보는 유한락스	64
	MANUAL 락스 사용 어렵지 않아!	68
	PART 1 락스 사용법: 기초편	70
	PART 2 락스 사용법: 상황별	80
	PART 3 락스 사용법: 응용편	98
CHAPTER 3 : COMMUNICATION	RITUAL 나의 락스 사용기	110
	MARKETING 유한락스 광고 변천사	146
APPENDIX	CATALOG 유한락스 제품 집중 분석	166
	LINE-UP 한눈에 보는 유한락스	182

유한락스 알려주세요

2017.08.18 10:02

Guest

조회 수 511813 추천 수 0 댓글 92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여름 방학 숙제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식물에 락스, 풍풍, 세탁세제, 과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섞어 식물에 줬을 때 생기는 반응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의 예상은 '락스는 바로 식물이 죽고 풍풍이나 세탁세제는 서서히 말라 죽고 과탄산은 친환경이니 물과 함께 잘 살지 않을까'였습니다.

근데 과탄산이 제일 먼저 죽고 락스 섞인 물을 준 게 물과 함께 살아남았어요. 제 생각에 엄마가 락스를 소독하는 데 쓰시고 냄새도 제일 독한데 말이에요. 제가 실험을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ㅠㅠ

제가 사용한 락스는 유한락스 레귤러이고 물 170mL에 락스는 10mL였습니다.

유한락스 알려주세요!

2017년 8월, 유한락스 브랜드 사이트 내 Q&A 게시판에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락스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에 관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한락스는 연구실 직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오고 간 고객과의 진지한 대화는 지금도 여전히 Q&A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WHITE BOOK’은 이렇듯 소비자의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락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며, 가장 정확한 사용법을 소비자에게 전하는 것. 오랜 시간 유한락스가 ‘생활백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사이트 내 다양한 콘텐츠를 전개해온 것도 이러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THE WHITE BOOK’이라는 이름 또한 ‘생활백서’에서 따온 이름이자, 청결의 상징 유한락스를 대변하는 하얀 색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락스’의 무한 찬양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100여 년 전 세균과 병균을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락스’의 존재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고, 수요가 높아질수록 살균, 소독, 표백을 대표하는 유한락스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직후 대한민국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유한크로락스에 대한 신뢰를 보내준, 세대를 불문한 소비자들을 위해 이 책을 내놓습니다.

IDENTEN

TITY

CHAPTER 1: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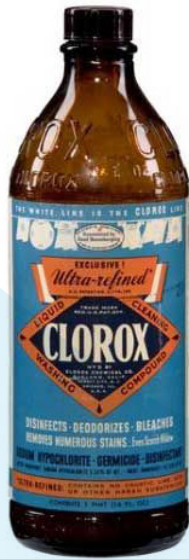
TIMELINE

FACT CHECK

WHERE TO USE

INTERVIEW

TIMELINE



락스의 옛날 이야기

대일밴드, 미원, 호치키스와 같이 브랜드
고유명사가 일반명사로 불리는 건, 그 분야
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다는 것.
18세기 미국에서 만들어진 '락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유한락스'
라는 이름의 일상 속 필수품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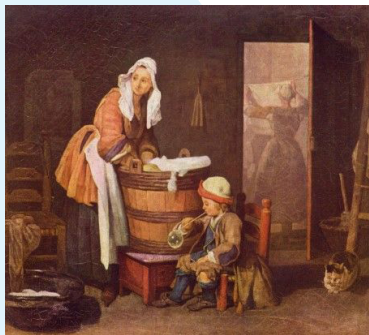


AMERICA'S FAVORITE BLEACH AND HOUSEHOLD DISINFECTANT

Ultra-refined CLOROX

BLEACHES • DEODORIZES • DISINFECTS
REMOVES NUMEROUS STAINS ... Even Scorch, Mildew

흔히들 옛날에는 잿물을 이용해 빨랫감을 세척했다고 하는 것처럼 서양에도 나무의 재로 비누를 만드는 전통이 있었다. 이 재를 침출시켜 만든 비누가 조선 말기에 수입되기 시작했고, '양잿물'이라는 용어도 이때 생겨난 것.



장 밥티스트 시메옹 샤르댕, 〈빨래하는 여인〉
1735년



장 밥티스트 그뢰즈, 〈빨래하는 여인〉
1876년



중세 시대에 빨래를 하는 모습



1922년의 크로락스 광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프랑스 화학자 베르톨레는 양잿물의 핵심 물질이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미국에서는 전기 용법을 이용해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에서 만든 상표가 '크로락스 Clorox'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락스'는 바로 수산화나트륨의 영단어 중 'Hydroxide'의 중간 글자에서 유래된 것이다.

크로락스 Clorox의 앞부분인 '클로 Clo'는 살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염소 성분의 소독 물질 중 '클로린 Chlorine'이라는 물질에서 유래하였다. 클로린은 병균을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후반에나 알게 되었다.



과거 크로락스 본사의 전경

이후 각종 공공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염소가
들어간 세제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원인도 모른 채 빈번하게 퍼졌던
전염병의 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락스로 생활 공간을 청소하는
것의 시초가 되었으며, 살균 및 소독에 있어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주도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코락스'에서 출발해 유한양행, 미국
크로락스와의 합작 후 '유한크로락스'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기까지 대한민국의 청결을
책임지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했던 중세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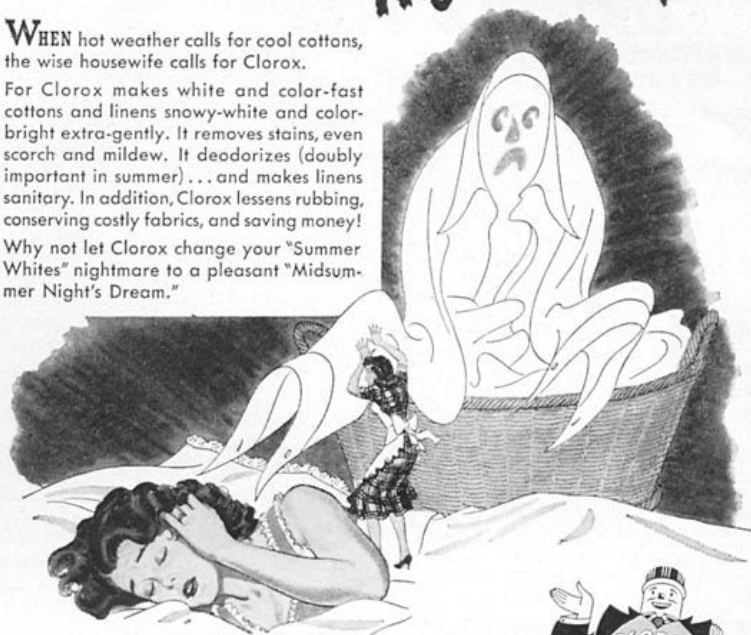
중세 시대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Are "Summer Whites" a Nightmare to you?

WHEN hot weather calls for cool cottons, the wise housewife calls for Clorox.

For Clorox makes white and color-fast cottons and linens snowy-white and color-bright extra-gently. It removes stains, even scorch and mildew. It deodorizes (doubly important in summer) ... and makes linens sanitary. In addition, Clorox lessens rubbing, conserving costly fabrics, and saving money!

Why not let Clorox change your "Summer Whites" nightmare to a pleasant "Midsummer Night's Dream."



You get these **2 BIG EXTRAS** with **CLOROX**

1. GENTLER
BLEACHING ACTION
...longer life for linens!

2. GREATER
DISINFECTING EFFICIENCY
...added health protection!

Clorox conserves costly linens and does a better job of disinfecting because it's free from caustic and other harsh substances ... made by an exclusive formula protected by U.S. patent!



Directions on Label

Copyright 1949, Clorox Chemical Co.

CLOROX ... AMERICA'S FAVORITE BLEACH AND HOUSEHOLD DISINFECTANT

위트 있는 일러스트로 제품을 광고했던 크로락스

1970s

가정상비약으로서의 락스

과거에는 락스가 의료용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70년대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에 전문적인 의약품 대신 락스를 일정 농도로 희석하여 감기, 화상, 무좀,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 등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의 사용설명서에는 락스를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전문 의약품이 개발됨에 따라, 가정상비약으로서 락스의 역할은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가정상비약 용도로 사용하던 1970년대 크로락스 광고 이미지

1980s

살균과 소독의 대표주자

1980년대에 들어 살균 및 소독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락스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살균, 소독, 표백, 악취 제거에 유한락스'라는 선전 문구가 대두되며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양하고, 주방의 각종 식기류를 포함하여 집 안 구석구석을 철저히 살균, 소독할 것을 권장하였다.

더불어 품질 인증 마크인 Q마크* 획득을 통해 락스는 국가 공인 시험 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청결을 상징하는 제품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Q마크: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제정, 업체의 품질 경영 체계 및 해당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청소용품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크로락스의 광고 이미지

1990s-2000s

현대적인 생활 방식의 반영

1990년대에 들어서는 락스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집 안 곳곳을 청소할 때 적재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90년대 초 주식회사 유한양행과 미국 크로락스의 합작 계약 이후, 선진기술이 더해짐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된다. '한방에' 해결 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청소 제품과 살균 및 소독 효과에 세척 기능이 더해진 제품이 출시되는 식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락스의 용도가 더욱 세분된다. 주방과 욕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도마 행주용 락스와 곰팡이 제거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온 크로락스 광고 이미지



2019s-

전염병 시대를 이겨내는 법

2019년 겨울, 코로나(COVID-19)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살균 및 소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유해균을 제거하는 위생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올바른 락스 사용의 중요성 또한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주 오래전 전염병을 물리친 염소 소독의 역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다시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FACT CHECK

유한락스,
진실을
알려줘!

True or False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살균소독제라는 본분을 다해온 유한락스. 그러나 5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끊이지 않는 오해와 거짓된 루머에 시달려 왔다. 과연 우리는 유한락스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두려움은 상대에 대한 정보와 인지가 부족할수록 커지는 법이다. 유한락스를 더 잘 알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팩트 체크.

환경

세균
환경
자연

염소가스

모
자
아
태

태아

Water

사용 온도

하
이

냄새

이
중
배
식

안전

하
위
사
제

① 락스에는 원래 냄새가 없다?

답은 0. 락스에 대한 오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흔히 ‘수영장 냄새’라고 표현하는, 락스 특유의 냄새는 유한락스 자체의 냄새가 아니다. 락스 속 성분이 곰팡이나 유해균을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유기물이 산화되는 냄새**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냄새가 지독할수록 락스를 사용한 곳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만약 냄새를 줄이고 싶다면, 물과 세제로 간단한 1차 세척을 마친 뒤 락스를 사용하면 된다. 청소의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환기하며 진행된다면 냄새에 대한 걱정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청소 시 발생하는 냄새에 노출되더라도 중금속, 미세먼지와 같이 인체에 잔류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는 반드시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갖추어두는 것이 좋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에도, 혹시나 개인차로 인해 눈이 따갑거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잠시 바람을 쐬는 것을 추천한다.

“냄새가 지독할수록
락스를 사용한 곳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② 락스를 사용하면 유해한 가스가 발생한다?

답은 △. 흔히 유독가스라고 알고 있는 염소가스(염소 분자)는 유한락스에 포함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그 성질이 다르다. 락스를 사용했을 때 풍기는 **수영장 냄새는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성분이 유해물질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클로라민’ 냄새이며, 염소가스가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유한락스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유한락스를 가열하여 사용하거나, 산성 용액과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가 그렇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권장 방법대로만 사용한다면 염소가스 발생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돗물의 예를 들어보자. 수돗물에도 락스 성분(잔류 염소)은 존재한다. 기술적으로 공공 정수장을 거친 수돗물에서 잔류 염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런데도 잔류 염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정수장에서 일반 가정까지관을 이동하는 중에 미생물로 오염되어 수인성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일 그동안 수돗물로 샤워해도 불편함이 없었다면 유한락스 사용 후의 잔류 염소, 혹은 안전하게 사용했을 때의 염소 기체 발생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안전하게 사용했을 때의
염소 기체 발생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락스로 과일을 소독할 수 있다?

답은 O.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정식 등록된 살균소독제다. 100%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맑은 수돗물로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잔여물은 말끔히 사라진다. 그렇기에 야채와 과일 등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유한락스를 활용해 살균 및 소독 작업을 하기도 한다.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과일과 채소는 소독 처리를 한 후 섭취하는 것이 위생적이므로, 가정에서도 유한락스를 활용해 살균소독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계면활성제와 같은 잔류 성분이 없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깨끗하게 헹궈낸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향이 첨가된 유한락스 후레쉬, 유한락스 후로탈 제품은 야채와 과일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사항**

“100%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맑은 수돗물로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잔여물은 말끔히 사라진다.”

“오염된 지표수를 유한락스로 살균소독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재난 상황에 해당된다.”

락스를 활용해 식수를 만들 수 있다?

답은 △. 재난 상황에서 미생물에 오염된 지표수를 유한락스로 살균소독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유한락스 원액이나 희석액을 음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는 일이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되며 과일과 채소류의 살균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섭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재난 상황에서 유한락스 레귤러를 활용해 물을 살균소독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1) 유한락스를 물에 희석하기 전, 여과 혹은 침전 방식으로 물속에 보이는 부유물질을 최대한 제거한다.
- 2) 충분히 여과 및 침전한 후, 위쪽의 부유물이 없는 물을 용기에 옮겨 담고 물의 양에 따라 유한락스를 희석해 사용한다.

약 1L - 2방울

약 4L - 8방울

약 6L - 12방울

약 8L - 16방울

* 이때 발생하는 락스 소독 냄새는 식수가 살균 소독되고 있다는 증거다.

◦ **미국 질병관리본부, WHO 권고사항**

⑤ 임신부는 절대 락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답은 X. 임신부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식독성과 생식세포 변이원성이라는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

유럽연합 환경청에 따르면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생식독성이 없으며, 생식세포 변이원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락스를 사용함에 있어 감성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락스 사용으로 인해 해결될 살균에 대한 믿음보다 락스 사용으로 인한 불안함이 더 크다면 깨끗한 물로 닦아 청소하는 것으로도 적당한 위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생식독성이 없으며, 생식세포 변이원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가정용 분무기에 락스를 담아 분사하면 더 효과적이다?

답은 X. 생활화학제품 표기기준에 따르면, 액체형 살균제는 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액체형 살균제의 경우 흡입 등에 의한 독성 유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스프레이 내 스프링 부식 가능성 등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능력은 유해 미생물과 물리적으로 충분한 양, 시간을 두고 접촉해야 발생한다. 스프레이로 분사한 미세입자의 경우 명확하게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기에, 살균소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스프레이로 분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살균소독제를 바르거나 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 살균소독제는 반드시 닦아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스프레이로 분사한다면 닦아내야 할 위치 또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또한 용기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경우, 해당 용기의 성분과 락스 성분이 만나 알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기가 팽창할 수도 있으므로 본래 스프레이 형태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면 임의로 스프레이에 옮겨 담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본래 스프레이 형태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면 임의로 스프레이에 옮겨 담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7

락스는 자연을 훼손시킨다?

답은 X. 유한락스는 오염물질과 만나는 순간 빠르고 강하게 분해되어 미량의 소금 성분으로 남게 된다. 쉽게 말해, 소금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락스는 하수구에 버려도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일반적인 하수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유해성만을 띠게 된다. 또한 수원대 환경공학과와 연계하여 유한락스가 정화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험한 결과, 하천 및 정화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관한 시험 결과는 유한락스 브랜드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한락스는 하수구에 버려도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일반적인 하수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유해성만을 띠게 된다.”

8

락스에는 독성 또는 발암 물질이 있다?

답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따르면 물 10L에 유한락스 40mL를 희석한 200ppm 정도의 희석액을 마신 경우, 홍차와 비슷한 정도의 미약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부자극성의 경우, 원액이 닿으면 중증도자극성이 있으나, 보통 사용하는 수준의 희석액이 닿으면 비자극성을 띤다. 그러나 유한락스는 절대 안전, 절대 무해한 제품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특히 기본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오남용할 경우에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WHERE TO USE

락스를 찾아서

적은 용량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예로부터 널리 쓰여온 유한락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중시설에서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공시설의 살균소독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 과연 유한락스는 어떤 곳들에 쓰이고 있을까? 대표적인 공간 4곳을 소개한다.



수영장

락스, 하면 떠오르는 공간은 단연 수영장.
아주 오래전부터 대량의 물을 살균소독하기 위해
락스를 사용해왔고, 그로 인해 발생한 특유의
냄새는 락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실제로 유한락스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엄격한
검사기준을 통과하여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수처리제(수영장, 음용수 등의 살균소독제)
이며, 목욕탕과 수영장, 워터파크와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처리제, ‘아비타 5000’을 공급하고 있다.
실내 풀의 경우 물 80,000L-100,000L당 본품
1L, 실외 풀의 경우 물 50,000L-60,000L에
본품 1L를 부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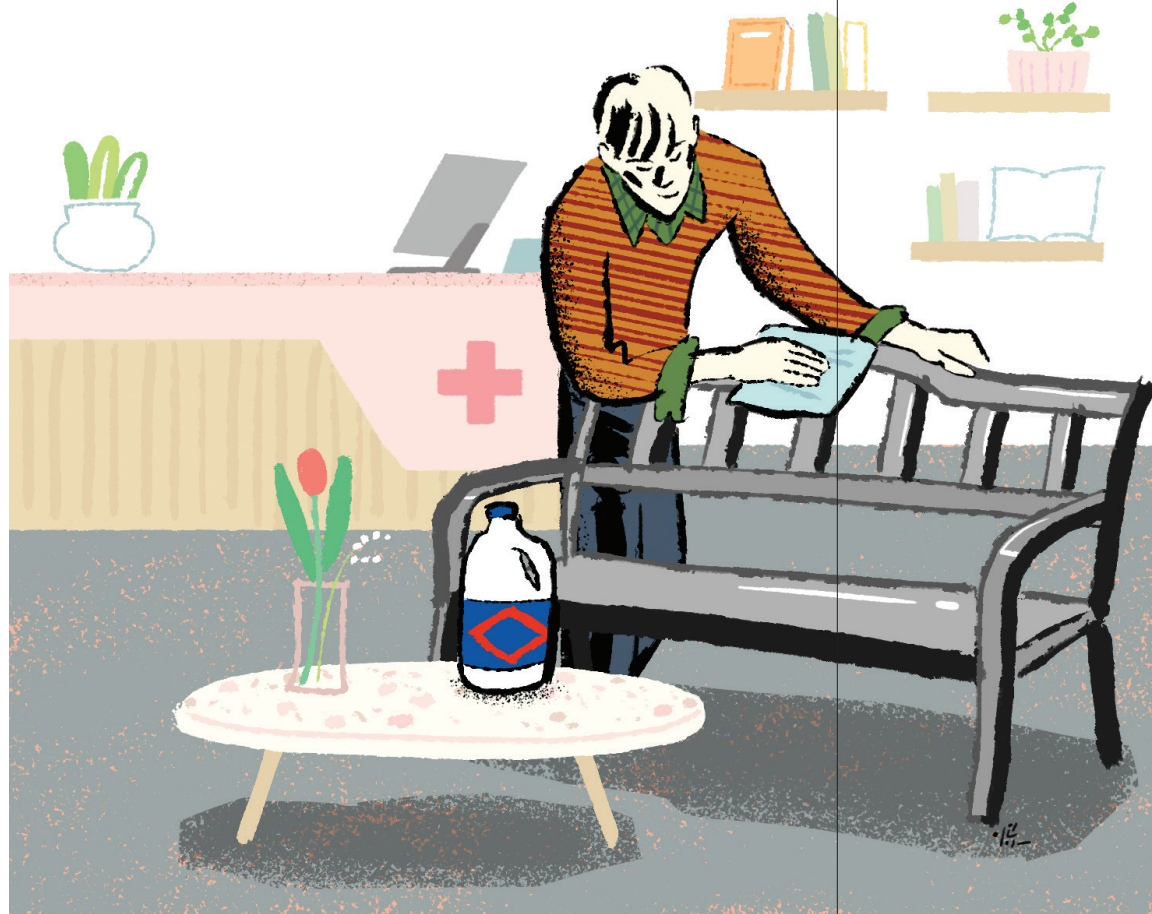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유한락스 레귤러가 쓰이는 곳 중 하나는 바로 학교 급식소. 과일과 야채 등 식재료와 식기류를 대량으로 살균소독 해야 하는 곳에서는 락스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식재료 및 식기류 등의 살균소독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한락스에서는 식당 등 업소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급식소 외에도 학교는 교실과 복도의 바닥, 화장실 등의 공간에서 락스를 활용하고 있다.



헬스장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계 대상 1순위로 떠올랐던 공간, 헬스장. 운동 기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물론, 땀 등의 노폐물로 인해 위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에 유한락스를 적절한 비율로 희석해 청소하고, 물수건으로 닦아내어 마무리하면 끝이다. 물론 영업 전 혹은 영업 후, 사람들이 없을 때 충분히 환기하며 청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어떤 공간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 중 살균소독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곳은 바로 병원. 수많은 병원균이 오가는 공간이므로, 제대로 살균하고 소독하지 않는다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병원에서도 락스는 사용된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는 락스 사용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병원 환경 소독 외에도 의료 기구 등의 살균 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대중 시설인 만큼 가급적 의료용 살균소독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 락스는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INTERVIEW

락스는
누가 만들까?

The Makers

변화하는 니즈에 빠르게 발맞춰 새로운 유한락스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유한락스를 생각하며 유한락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의 '메이커'라 부른다.

위생과 신뢰라는 가치

“위생과 신뢰, 이 두 단어가 유한락스라는 브랜드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한락스, 하면 락스뿐만 아니라 락스 성분이 없는 다른 제품들도 바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면 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한락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현재 유한크로락스 연구실 실장으로, 제품 개발부터 법규관리까지 R&D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조성희라고 합니다.

직접 진행했던 유한락스 관련 연구 및 개발 사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젤 타입의 락스, 액체 산소계 표백제 등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제 손을 거쳐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총괄적으로 있지만, 현재도 직접 경험하며 얻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담당 연구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제품의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세정살균티슈의 개발 과정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크로락스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다가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급하게 국내 생산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로락스 측의 기술 지원이 있었고, 덕분에 제품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내 및 수출까지 하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은 제품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올바른 접근 방법(Approach)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최소화돼서 효율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실의 묶인 부분을 풀지 않고 엉뚱한 곳을 건드리다 보면 오히려 실타래가 더 엉키는 법입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실의 묶인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 기준을 정하여 문제 사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념적,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 사항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상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해답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적인 진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락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습니다.

락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나요?

유한락스를 사용하면 발암 물질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선편의식품을 이용해 유효염소 농도, 사용 온도, 침지 시간, 행금 횟수 등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모든 조건에서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락스 연구원으로 일하며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창의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유한락스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유한락스의 가족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생과 신뢰, 이 두 단어가 유한락스라는 브랜드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으면서 안전한 제품인 유한락스가 생활용품의 각 분야에서 1위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유한락스, 하면 락스뿐만 아니라 락스 성분이 없는 다른 제품들도 바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면 합니다.

유한락스에 거리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확실한 효과만큼 막연하게 ‘독하다’는 인식이 있어 거리감을 느끼는 소비자분들이 많습니다만, 유한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수돗물에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한락스는 수돗물의 40,000배 농축액이라고 볼 수 있죠. 락스는 소비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제품으로써, 정말 위험한 독성물질이라면 100년 이상 사용이 불가했을 것입니다. 락스를 사용하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곰팡이 제거 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감기 독감 바이러스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장염균, 폐렴균, 녹농균 등 각종 균 제거를 통한 위생적인 생활환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락스는 오염된 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수처리제 용도,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야채·과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용도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유한락스는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한 마케팅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시기에도 ‘안전한 살균소독법’을 통해 유한락스가 갖는 살균소독제로서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결국엔 소비자가 인정하고 찾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한락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마케팅팀 차장 김춘재입니다.

유한락스의 A to Z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 to Z를 담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브랜드와 브랜드가 포함된 카테고리 의 생태계, 그리고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기획부터 브랜드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관여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브랜드인 만큼, 광고와 마케팅에 관한

역사도 대단합니다. 과거의 마케팅 사례 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한락스로 채소와 과일을 살균소독 하라고 했던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 혹은 ‘락스로 어떻게 음식을 살균소독 하느냐’라는 반응을 남기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광고였는데요. 사실 유한락스는 식품첨가물로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채소, 과일 등 식품부터 주방 설비 및 기구의 살균 소독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이지요. 락스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락스 성분이 남지 않습니다. 락스 사용 시 발생하는 강한 살균소독 냄새로 인해 식품에 사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당시의 광고로 인해 락스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네요.

마케팅 방안을 구상하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브랜드 사이트의 Q&A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소비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점, 나쁜 점, 아쉬운 점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광고 캠페인으로
더 많이 알리고, 나쁜 점은 가능한 한 개선해서 또 알리고,
아쉬운 점은 보완하여 신제품 아이디어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브랜드 사이트의 Q&A 답변이 화제가 되어

TV 프로그램 '유퀴즈'에도 출연하신 바 있죠.

당시의 경험이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유퀴즈 출연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브랜드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락스 냄새와 독성,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사실을 전달하는 일에
내부 공통적으로 큰 갈증이 있었는데,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며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모습이
유한락스답다고 느껴집니다.

트렌드는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은 어렵고, 자칫하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한락스는 브랜드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시기에도 '안전한 살균소독법'을 통해 유한락스
브랜드가 갖는 살균소독제로서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한락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은 결국엔 소비자가 인정하고 찾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모회사인 유한양행과 클로락스의
기업이념이기도 합니다.

락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아직까지 거리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락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균소독제입니다. 유해균은
강력하게 살균하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살균소독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과 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
하신다면 편견과 오해는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용상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유한락스 브랜드 사이트에
문의 남겨주세요. 편견과 오해가 풀릴 때까지 안내하겠습니다.



CHAPTER 2: Q&A

REPORT
MANUAL
Q&A

REPORT

LET ME KNOW!

염소? 그게 대체 뭔데?

유한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
쉽게 말해, 염소를 사용해 살균하고 소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염소'라고 하면 겁부터 먹는 사람들이 많다.
왜일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수도물에도 염소는
존재하는데 말이다. 이 염소라는 물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NaClO

염소, 소독제로 활용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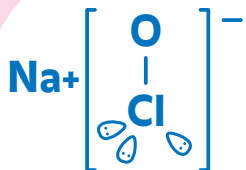
염소 소독은 현재 상수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독
방법으로, 최초의 염소 소독은 1902년, 벨기에에서 시작됐다.
염소로 소독하는 이유는 수도물에 오래 잔류해서 일반 가정에
공급되기까지 수도관으로부터 침투하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소 소독 덕분에 인류는 수도물을 살균 및 소독할 수
있었고, 수도물로 감염되는 전염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준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물론 염소가
완벽한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수도물을 씻는 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먹는 식수는 또 다른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염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균을
말끔히 처리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염소가 유기물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트리할로메탄(THM)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평소 사용하는
수도물이 암을 유발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충분한 여과
과정을 거쳐 최대한 트리할로메탄(THM)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한락스 또한 마찬가지다.

유한락스 속 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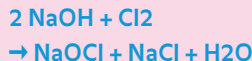
그런데 염소라고 다 같은 염소가 아니다. 보통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는 유한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제외하고도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소독에 사용되지 않는 염소까지 생각한다면 그 종류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다. 그렇다면 과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어떤 역할을 할까?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다행히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등 유해물질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식품의약국(FDA)에서도
마찬가지다.

숫자로 보는 유한락스와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분자구조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화학 반응식



유한락스 출고 시
유효염소농도

4.5%
= **45,000PPM**

THM 발생 여부

유한락스 성분으로 신선편의식품(양상추)
1회 행궁 조건 하에서 농도별(50~500ppm),
온도별(5~50%), 침지 시간별(10~20초)로
살균, 소독한 후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THM이 검출되지 않음.

THM

LET ME KNOW!

유한락스는

100%
수용성

유한락스를 하수구에 버리면?

2분 만에 96%, 결국엔 100% 분해
→ 따라서 하수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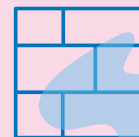
기본 사용 수칙

200배 희석

5분 이상 접촉



5 MINUTE



10ML

15ML

유한락스 용기 뚜껑 용량

500ml 이상 3L 미만: **10ml**
3L 이상 5.5L 이하: **15ml**

유한락스의 살균력

일반세균: 400배 희석액으로 5분 처리 시 **99.9%** 살균
바이러스: 40배 희석액으로 처리 시 **99.9%** 살균
곰팡이균: 15배 희석액&원액으로 처리 시 **99.9%** 살균

99.9%

락스 사용 어렵지 않아! ✨

계량 방법

유한락스 용기별 뚜껑 용량

* 500mL 이상 - 3L 미만 용기 뚜껑 용량 **10mL**

* 3L 이상 - 5.5L 이하 제품 뚜껑 용량 **15mL**

* 말통 뚜껑 용량 **30mL**

주의 사항

유한락스 뚜껑으로 계량한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물로 행구어주세요. 뚜껑에 남아있는 액으로 인해 의류 등에 탈색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금과 같은 염으로 바뀌어 다음 사용 시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석공식

유한락스의 출고 시 유효염소 농도는

4.5% = 45,000ppm*

(원하는 유효염소농도)ppm × (전체용량)mL =

원액의 유효염소농도(4.5%) × 희석할 락스 용량

예시

250ppm 희석액(원액 4.5% 기준, 180배 희석)

1L를 만들 때 필요한 락스 용량은?

$$250\text{ppm} \times 1,000\text{mL} = 45,000\text{ppm} \times x\text{mL}$$

$$x = 5.5\text{mL}$$

답: 필요한 락스 용량은 5.5mL

참고 사항*

원액의 농도 1%는 10,000ppm으로 생각하세요.

유한락스 원액의 농도가 4.5%이므로 본 환산 식에는 45,000ppm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유한락스 제품의 제조 시 유효염소 농도 기준이 5%에서 4.5%로 변경되었습니다.

Q&A: Part 1

락스 사용법: 기초편

- 1 기본적인 사용 수칙을 알려주세요!
- 2 개봉 시 락스 냄새가 안 나면 불량인가요?
- 3 락스 사용 시 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락스 원액을 뜨거운 물에 희석해도 되나요?
- 5 락스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 성분, 정말 무해한가요?
- 6 일주일 정도 사용할 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 7 락스의 잔여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나요?
- 8 락스가 피부와 눈 점막에 튀었어요!
- 9 물로 착각하고 락스를 마셨어요!
- 실수로 락스를 마시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 희석액을 손으로 만졌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 11 락스를 다른 통에 옮겨 담아도 되나요?



① 용도에 따라 알맞은 농도의 희석액을 사용하세요.

유한락스는 각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농도가 있습니다. 락스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옷감이나 청소 도구 등에 자극이 갈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맞게 물과 적절한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맑은 수돗물을 제외한 기타 세정제 등과 혼합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이 만났을 때, 경우에 따라 성분 미상의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A 물질 사용 후에는 반드시 A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B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③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 후 사용하세요.

장시간 접촉 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가 탈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④ 본 제품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용기 소재와 반응하여 화학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멸균 처리된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옮겨 담은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물질이 혼합되어 용액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⑤ 사용 후 반드시 닦아내어 마무리하세요.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성분은 휘발하여 제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살균소독제는 살생물제의 일종이므로, 행굼 등의 과정을 거쳐 확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불량 제품이 아닙니다. 흔히 ‘락스 냄새’라고 불리는 냄새는 락스의 고유한 냄새가 아닌, 유기물 혹은 오염물과 접촉 시 살균 작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냄새입니다. 따라서, 오염도가 클수록 냄새도 심해집니다. 개봉 시 냄새가 나지 않아 제품의 효능이 의심된다면 유한락스 희석액을 손가락 끝에 살짝 묻힌 다음 손가락으로 비빈 후 냄새를 맡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손톱 등에 남아 있던 세균 등이 살균되며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락스 사용 시 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한락스는 산화성 살균소독제이므로, 미생물 등과 산화 반응할 시 다양한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위해성이 발생할 수 있는 농도로 악화되지 않으나,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위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균소독 시작 전부터 완전히 닦아낸 마무리 과정 이후까지 충분히 환기하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 화장실 등에서 사용할 경우, 출입구 쪽으로 선풍기 등을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냄새와 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분들은 사용 전에 오염 부위를 물, 세정제 등으로 1차 세척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한락스는 차가운 물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탕 소독은 전통적인 살균소독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한락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가운 물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loride ion

유한락스는 염소계 살균 표백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한락스 속 염소는 '차아염소산 이온'으로 흔히 유독가스라 불리는 '염소가스'와는 다른 물질입니다. 또한 유한락스 원액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 성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물과 소금과 같은 염으로 바뀌기 때문에 염소가스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가열해 사용하거나 산성을 띤 물질과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염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돗물 또한 정제된 물에 해당하지만, 일부 존재하는 유효 성분과 반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염소 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석액은 24시간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소재의 용기와 락스가 만나 성분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기에 미리 만들어 두고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FAO, WHO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한락스와 같은 살균소독제로 처리한 식품에 잔류물이 일부 남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후 물로 2-3회 헹구면 99.9% 제거되므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시 물로 씻어내세요. 유한락스의 모든 성분은 피부를 통해 체내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100% 수용성이므로 많은 수돗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응급 처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눈 점막의 경우,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성분이 제공하는 강력한 산화력에 의한 점막의 표면 손상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극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토를 유발하는 대신, 최대한 많은 물 혹은 우유를 마시면서 체내의 유한락스 농도를 빠르게 낮추어야 합니다. 락스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큰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구토를 유발한다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이후에도 점막의 자극,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락스를 마시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한락스 원액은 노란빛을 띠고 있지만 희석할 경우 보기에 수돗물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식수와 연관될 수 있는 용기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용 완료 후에는 즉시 하수구에 배출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사용 수칙만 준수한다면 락스 음용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손톱 사이의 유기 오염물과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성분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의 냄새입니다. 냄새가 나는 부위를 코에 가까이 댔을 때 비로소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주의할 만한 위해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세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냄새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유한락스를 포함한, 모든 살균소독제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살균소독제의 화학적 특징으로 인해 용기와 반응하여 용기가 팽창하거나 깨져 원액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도로 멸균 처리된 시설이 아니라면 옮겨 담은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효성분의 농도가 떨어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락스 사용법: 상황별

집안 청소

- 12 식품의 살균소독에 사용해도 되나요?
- 13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 유한락스 펄크린을 사용해도 될까요?
- 14 얼음 틀은 세척하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나요?
- 15 락스를 수세미 세척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 16 조심스러운 전자레인지 청소,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 17 반찬 통에 밴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 18 욕실 청소 시 유한락스 희석 비율이 궁금해요!
- 19 욕실 곰팡이, 종류별 처치법을 알려주세요!
- 20 실내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 21 에어컨 살균소독에 락스를 사용해도 되나요?
- 22 세정살균티슈와 일반 물티슈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백 및 세탁

- 23 흰옷을 더욱 하얗게 세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4 락스로 표백해도 되는 옷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25 찌든 때 표백을 위해 희석액에 담가 두었는데 분홍색 물이 들었어요!
- 26 의류 소재도 확인하고, 테스트도 거쳤는데 황변 현상이 일어났어요!
- 27 황변 현상이 일어난 옷, 이대로 버려야 하나요?
- 28 세탁기와 세탁물에서 냄새가 빠지지 않아요.

아기, 반려동물과 함께

- 29 아이 방, 락스로 청소해도 괜찮을까요?
- 30 어린 아이 천 기저귀 위생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 31 반려동물 털 손질로 욕실 배수구가 막혔어요!
- 32 강아지의 배변 후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싶어요!
- 33 반려동물이 락스를 마셨어요!



식중독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한 식약처 권고사항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정식 등록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과일, 채소류 등의 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현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단체 급식소 내에서 식품 침지 등의 소독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삶아서 소독할 수 없는 생야채와 과일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 유한락스 핑크린을 사용해도 될까요?



욕실 배수구와 달리, 싱크대 배수구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던 섬유소나 지방질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 성분은 핑크린 사용 시 기름을 굳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배관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녹이거나 세제를 붓는 등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조용한 문



그렇지 않습니다.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실에서는 세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중독 유발균 중 하나인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아 우리의 먹거리를 오염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특히 물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유해균이 더욱 증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얼음을 얼리기 전에는 매번 얼음 틀을 세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L의 물에 유한락스 레귤러 50mL를 넣어 200배로 희석해 얼음 틀을 5분만 담갔다 행궈내고 말려주세요. 희석한 용액이 남았다면 스펀지나 행주 등에 용액을 묻혀 주방 조리대 등의 살균소독, 냉장고 내부 청소에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한 문



맞습니다. 매번 세제를 묻혀 사용하니 충분히 깨끗할 것 같지만, 수세미 또한 식중독균이 번식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세미를 햇볕에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등 고온에 가열하면 살균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균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에는 유한락스 도마행주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도마와 행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세미에 적당량을 묻혀 비비거나 희석한 용액에 5분 정도만 담갔다 물로 헹궈내면 각종 유해균이 99.9%까지 제거됩니다. **단, 동물성 수세미 혹은 철 수세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길



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내부에 음식물이 튀어 얼룩이 생기기 쉽고, 장기간 방치한 기름때와 찌든 때는 깔끔하게 닦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오염물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특성상 분해 세척이 어렵고, 기기 내부에 직접 물을 뿌리거나 세정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청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식초 1/3, 물 2/3, 레몬 한 조각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10분가량 돌려 때를 불린 후 스펀지나 행주로 때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식초 냄새가 심하고, 청소 과정이 번거로우며, 완벽한 살균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럴 땐 유한락스 세정살균티슈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전자레인지 내부를 세정살균티슈로 닦은 후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락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특유의 수영장 냄새가 발생하지 않으며, 3가지 향 중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골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덕션, 가스레인지, 주방 후드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음식물이 직접 닿는 식기류와 조리도구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조심하길



반찬 통에 밴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밀폐 용기 등 각종 반찬 통에서
비린내와 온갖 귀찮한 냄새를 맡아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효과적인 세척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과정을 따라 해보세요

① 우선 반찬 통 뚜껑 부분에 밀착되어 있는 고무패킹을
분리해주세요.

② 그런 다음 물 5L에 유한락스 25mL를 넣은 200배 희석액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고무패킹과 뚜껑, 용기까지 폭 잠길
정도로 담가주세요.

③ 시간이 흐른 후 깨끗한 물에 충분히 행궈내면
불쾌한 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 만약 고무패킹과 뚜껑 등에 미세한 검은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면 10배 희석액에 담근 후 칫솔 등으로 먼저
문지른 다음 세척해주세요.

④ 밀폐 용기는 세척만큼 건조도 중요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반찬 용기, 뚜껑, 고무패킹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자연건조 시키세요.

⑤ 위와 같은 방법은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식기류 등의
살균소독 방법입니다. 행궈내지 않고 자연건조 시켜도
잔여 성분이 남지 않으나, 혹시 락스 성분이 남아있을까
걱정되는 경우 사용 전 먹는 물로 행궈주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용한
침묵

욕실 청소 시 유한락스 희석 비율이 궁금해요!



사용 목적에 맞게 아래 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① 욕실 세면대, 타일

· 물 10 L + 유한락스 55 mL = 180 배 희석

② 변기, 하수구, 쓰레기통, 욕실화

· 물 3 L + 유한락스 150 mL = 19 배 희석

* 희석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유한락스 욕실청소용을
활용하세요. 원하는 부분에 분사 후 물만 뿌려주면 됩니다.

조용한
침묵



곰팡이 위치와 오염 정도에 따라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① 수평 바닥에 넓게 퍼진 곰팡이

유한락스 레귤러, 후레쉬, 후로랄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넓은 범위를 살균소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② 수직 벽면에 넓게 퍼진 곰팡이

마찬가지로 유한락스 레귤러, 후레쉬, 후로랄을 사용하지만, 희석액이 아닌 원액을 키친 타올, 물티슈 등에 적셔서 곰팡이가 위치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접촉한 다음 씻어내세요. 이 같은 방법이 번거롭다면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와 직접 바르는 곰팡이젤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③ 천장에 넓게 퍼진 곰팡이

무엇보다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점도가 가장 높은 직접 바르는 곰팡이젤 사용이 가장 적절합니다.

조용한 문



락스는 세척과 건조가 동반되어야 하는 살균제입니다. 벽지의 경우, 세척과 건조가 제한적이므로, 벽지 내에 락스 성분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며든 성분이 벽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곰팡이 제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면 **곰팡이가 핀 벽지 부분에 유한락스 희석액을 적신 스폰지로 두드리듯 얇게 바르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때, 바닥에 유한락스 희석액이 고이지 않도록 소량씩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석액의 경우 유한락스와 물의 비율이 1:5가 되면 충분하며, 시작 전 보이지 않는 벽지 한쪽 구석에 희석액을 조금 묻혀 벽지가 손상되지 않는지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곰팡이가 충분히 제거된 후에는 희석액을 적셨던 부분을 물걸레로 닦아내 주시거나, 마른걸레로 닦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문



실내용 가전 기기를 부주의하게 살균소독하게 되면
가전 기기 부속이 부식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가습기 등 공기 혹은 호흡과 관련된
가전 기기의 청결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구조상 살균소독 성분을 제대로 닦아내기 어렵고,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살균소독 성분이 미세입자로 분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어컨의 경우 에어컨
전문 청소 제품을, 가습기의 경우 깨끗한 수돗물로 부지런히
닦고 말려주는 것으로 청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티슈를 이용해 집 안 청소를 할 경우, 보여지는
지저분한 얼룩이나 오염 등은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균소독 성분이 없는 일반 물티슈로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세정살균티슈는 감기
바이러스 및 폐렴과 기관지염 유발균, 식중독 유발균, 병원성
대장균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균과 바이러스를 99.9%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표면이 젖을
정도로 충분히 닦아준 후 4분 정도만 말려주면 끝이죠.
다만 세정살균티슈는 피부를 닦는 용도로 개발된 제품이
아니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식기류 등 음식이 직접 닿는 곳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티슈



락스의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옷감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 염소계 표백제 사용이 가능한 의류에만 사용이
가능하니 케어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야나 세면대에 담가서 표백할 경우

세탁물을 세제로 세탁한 후, 냉수 10L에 유한락스 흰옷
표백용 제품 55mL를 넣은 희석액에 세탁물을 10-20분 정도
담가주세요. (180배 희석) 20분가량이 지난 후 옷을 충분히
헹구고 건조시키면 끝!

② 표백이 아닌 얼룩 제거를 할 경우

세제로 1차 세탁을 한 후 냉수 1L에 흰옷 표백용 40mL를
넣고 10-20분 정도만 담근 다음, 헹구어서 건조시켜 주면
얼룩이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③ 간편하게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첫 번째 헹굼이 진행될 때 유한락스 흰옷 표백용 1/2컵
(100mL)을 넣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1컵 (200mL)을 넣고,
2회 추가 헹굼을 해주면 간편하게 표백 및 얼룩 제거가 됩니다.

표백 및 세탁

락스로 표백해도 되는 옷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의류 안쪽의 케어라벨에서 표백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염소계 표백제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유한락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을 경우 해당 의류 브랜드 혹은 제조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찌든 때 표백을 위해 희석액에 담가 두었는데 분홍색 물이 들었어요!

섬유 변색 없이 유한락스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오염된 섬유를 세탁용 세제로 1차 애벌 세탁 후 유한락스로 표백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이 의류에 남아있거나 오염된 상태에서 바로 유한락스를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황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관이 오래되거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물속 금속 성분으로 인한 황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한락스 흰옷 표백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백 및 세탁

의류 소재도 확인하고, 테스트도 거쳤는데 황변 현상이 일어났어요!

섬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세탁수에 함유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불순물 또는 의류 염색 성분이 유한락스와 반응한 후 섬유 표면에 눌러붙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도관 노후로 인해 물에 철 등의 불순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물 속 불순물에 의한 황변을 방지하고, 조금 더 확실한 표백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유한락스 흰옷 표백 제품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한락스만의 기술로 물 속 불순물에 의한 황변 현상을 방지합니다.

황변 현상이 일어난 옷, 이대로 버려야 하나요?

황변 현상에 사용하는 복원용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하이드로설파이트'로, 적당히 사용할 경우 옷감의 손상 없이 색상을 복원해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세탁소 전문가용 약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유한락스가 신청 고객님들에게 15g 소포장으로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드로설파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황변 의류가 원 상태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드로설파이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하세요.



* 하이드로설파이트
상담 바로가기





세탁조를 청소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탁 후 남은 세제 찌꺼기와 세탁물에 붙어 있던 각종 먼지와 오염물은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탁을 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등 피부 질환 또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탁조 청소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유한락스 세탁조 세정제를 이용해 보세요.

① 통들이 세탁기의 경우, 빈 세탁조에 세정제를 적당히 넣은 다음 통세척 혹은 표준 코스를 설정하여 세정을 진행하세요. 표준 코스를 선택한 경우, 만수위로 세탁수를 채운 후 진행하세요.

② 드럼 세탁기의 경우, 50mL에서 150mL 정도를 드럼에 직접 투입한 후 마찬가지로 찬물과 표준 코스, 고수위를 설정하여 세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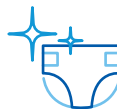
* 세탁조 청소가 처음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세정제를 붓고 1~2시간 방치한 후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세제 투입구가 아닌 세탁물이 없는 빈 세탁조에 직접 부어서 사용해 주세요. 청소 후 오염물과 찌꺼기 등이 남아 있다면 한 번 더 행굼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표백 및 세탁



유한락스 자체는 물과 소금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한다면 큰 위해성이 없습니다. 락스 사용 시 특유의 수염장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유독 물질을 발생하는 것이 아닌, 유한락스 성분이 오염물을 태운다는 신호입니다. 냄새가 많이 날수록 아이 방에 오염물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도 냄새가 걱정된다면 락스 소독 전 걸레로 한 번 닦아내는 등 1차 청소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청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 천 기저귀 위생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화학첨가물에 대한 우려로 천 기저귀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번 삶고 소독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권장 사용법을 준수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아이 기저귀를 살균소독할 수 있습니다.

① 우선 물 10L에 유한락스 레귤러 약 55mL를 넣어 180배 정도로 희석해 주세요.

② 이 희석액에 기저귀를 5분간 담근 후 맑은 물로 충분히 행궈준 다음, 물기를 짰 후 자연 건조해주면 됩니다.

아이, 반려동물과 함께



먼저 배수구 가림막에 엉켜있는 털을 제거해준 다음, 유한락스 핑크린을 사용해 주세요. 배수구가 막혔을 때 뿐만 아니라 핑크린을 주기적으로 사용해주는 것은 배수구 관리에 있어 중요합니다. 또한 핑크린에는 하수관을 보호해주는 부식방지제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하수관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펫 메스 리무버를 사용해 빠르게 냄새와 얼룩을 제거하세요. 반려동물 의류의 애벌 세탁은 물론, 반려동물 용품 주변의 바닥이나 화장실 타일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한락스 세정살균티슈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려견의 배설물 흔적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99.9% 말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단, 두 제품 모두 반려동물에게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반려동물과 함께



원액을 과량 섭취했을 경우 점막의 자극, 구토, 복통 및 복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락스는 알칼리성 물질이므로 매우 쓴 맛이 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이를 무시한 채 다량으로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량을 섭취한 경우, 유한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유기물과 접촉 시 빠르게 반응하여 살균소독한 후에 유해하지 않은 미량의 소금 성분으로만 남게 되므로 반려동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 증세가 보일 경우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아기, 반려동물과 함께

Q&A: Part 3

락스 사용법: 응용편

- 34 독감을 락스로 예방할 수 있나요?
- 35 락스를 살충제 대신 사용해도 될까요?
- 36 선물로 받은 꽃을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 37 락스에는 유통기한이 없나요?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38 락스가 살균소독의 역할을 한다면 무좀균도 없앨 수 있나요?
- 39 음식물로 막힌 변기, 핑크린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40 락스 사용법을 보면 참깨에 사용을 금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는 문손잡이와 책상에서 최장 72시간을 살아서 버티므로, 일반 세정제로 살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한락스와 같이 공인 기관에서 살균력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로 집 안 청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한락스가 독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0% 예방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유한락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한락스는 살충제나 탈취제가 아닌 살균소독제입니다. 유한락스는 균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살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보다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벌레가 생겨 유한락스를 뿌린다면, 깨끗한 벌레를 만들 수는 있어도 벌레를 죽게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불이나 커튼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 집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도 전문 살충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며, 악취로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세균 등을 유한락스로 제거할 수는 있으나, 냄새 제거를 위한 제품은 아니므로 유한락스 사용 이후 전문 탈취제를 함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화사한 꽃 선물은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처음의 생생하고 화려한 모습은 오래 유지되지 않고 금방 시들어버리곤 합니다. 이때, 유한락스를 사용하면 꽃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꽃병에 물 1L를 채우고 유한락스를 두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섞어주세요. 그 다음 꽃의 줄기 끝을 다듬어 길이를 조절하고 희석액이 담긴 꽃병에 꽃을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유한락스 제품은 식품첨가물과 생활화학제품 그리고 위생용품에 속하며, 두 가지 모두 유통기한 표시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효 염소 농도를 고려하여 제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15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도 희석할 원액의 양을 늘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되어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하수구 청소 목적으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3L 정도의 유한락스를 하수구에 한 번에 버려도 환경이나 인체 유해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한락스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살균 소독력을 높인 수돗물 농축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한락스 성분은 하수구 배출 시 2분 이내에 96% 이상 분해됩니다. **최종 하수 처리장에 도착할 때쯤에는 일반적인 하수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락스가 살균소독의 역할을 한다면 신체의 무좀균도 없앨 수 있나요?



유한락스는 **전문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과 발 등의 신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무좀이나 피부염의 치료에 사용하시는 것은 2차 피해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유한락스 희석액으로 무좀을 완치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로 막힌 변기, 펑크린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펑크린의 역할은 단백질을 용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은 떡볶이를 변기에 버리다 막혔다면 어떨까요? 떡볶이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기에 펑크린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경우, 전문 배관 업체에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락스 사용법을 보면 참깨에 사용을 금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식품첨가물로 인정되나, 생야채와 과일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식품 중 특별히 참깨를 특정한 것은 일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경, 일본에는 검은깨를 락스에 탈색시켜 흰깨로 판매하는 식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흰깨가 검은깨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는 참깨에 락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현재 락스 사용법에 기재가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생야채와 과일 이외의 식품에는 유한락스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COMMUNI- CATION

CHAPTER 3: COMMUNICATION

RITUAL
MARKETING



RITUAL

나의 락스 사용기

1인 가구부터 반려동물 가구까지,
각기 다른 가구의 형태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꾸며진 집에서 과연 유한락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시대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온 유한락스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집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만났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집

유튜버
헤이메이데이

배려하며 맞춰가는 삶

‘서비스센터’ 대표 · 개발자
전수민 · 권윤서

잡념을 비워내는 시간

프리랜스 마케터
정혜윤

나의 가장 작은 친구를 위하여

‘2UC’ 대표
권광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집

헤이메이데이는 약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살림 전문 유튜버다. 언뜻 보기에는 마냥 단정하고
예쁜 집의 모습만 비추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10년 차 주부의 내공은 물론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런 그가 두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른 유한락스는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에게 청소란,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youtube.com/c/heymayday



주부이자 유튜버예요.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있나요?

5살 터울의 두 딸을 키우며 살림하는 일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전부터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남기는 걸 좋아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취미 삼아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요리, 청소, 인테리어 등 살림 관련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유튜브를 계기로 살림을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4인 가족이 사는 집을 청소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헤이메이데이 님만의 청소 루틴이 궁금합니다.

유튜브에도 ‘아침 청소 습관’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매일 청소를 해요. 대신 오전 시간에 30분 내외로 간결하게 끝내죠. 가장 먼저 빨래를 하고, 아침 식사 후 남은 식기를 설거지한 다음 주방 정리를 마쳐요. 그리곤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로 마무리합니다.

매일 청소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요?

일상생활 속 청소를 습관으로 만들면 쉬워져요. 세수하면서 세면대를 닦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현관을 정리하는 식이죠. 샤워하면서는 샤워 부스를 청소하고요. 그러면 날 잡고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늘 쾌적하고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청소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평소 유한락스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나요?

유한락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버지가 떠올라요. 성격이 매우 깔끔한 편이신데, 특히 화장실은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면서 늘 한쪽 구석에 유한락스를 두고 주기적으로 사용하셨거든요. 덕분에 우리 집 화장실은 언제나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했고, 깔끔한 락스 향이 풍겼어요. 그런 기억 때문인지 유한락스는 늘 곁에 있는 듯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넓고 깨끗한 실내 수영장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해요. 막 청소를 끝낸 수영장에서 말을 수 있는 락스 냄새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 중에서는 락스가 인체에 해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사용을 주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또한 아이 둘을 키우게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천연 성분을 강조한 세제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성분에 있어서 안심은 됐지만, 아무래도 세정력이나 소독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인정이 되어서, 과일이나 채소를 소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한락스 레귤러를 소량 희석해서 레몬 세척에 활용해 봤는데, 매끄럽지 못한 걸면에 묻어 있던 농약 등 유해 물질과 각종 균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어요.



*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유한락스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지만,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거군요.

락스라고 하면 강력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가려진 부분들이 더 많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음식에 닿는 물질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여요. 한 번에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으니 가성비 면에서도
훌륭하죠. 그래서 유한락스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겼어요.

살림 전문가로서,
새롭게 출시되었으면 하는 유한락스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활동성이 커지다 보니,
옷이든 물건이든 아이들이 만지는 곳에 얼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한 얼룩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유아 전용이나
장난감 전용 유한락스 제품이 출시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유한락스는 성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락스라는 이름과 패키지가 아이들에게
사용하기에는 다소 독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이름이나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아이를 둔 주부들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네요.

헤이메이데이 남에게 청소라는 행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와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행복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는 위생과
청소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실천해 왔는데요. 제가 깨끗하게
청소한 집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성취감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살림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 살림으로 인해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면 삶에서 이보다 더 큰 만족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한락스가 어떤 브랜드로서 우리 결을 지켰으면 하나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유한락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트렌디함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클래식한 감성이 모든 연령층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신뢰감을 더욱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궈온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전통을
훗날 제 아이들이 자라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까지
꼭 이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서비스센터' 대표 · 개발자

전수민 · 권윤서

배려하며 맞춰가는 삶

다양한 공간 및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서비스센터 디렉터 전수민은 주로 집에서 일을 한다. 그에게 집은 디자인 작업에 영감을 불어넣어 줄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틈틈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전수민은 최근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이 하나로 모이는 일은 멀어낼 것은 멀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청소의 모습과 닮아 있다.

[@min.is.here](https://min.is.here)

우선 축하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부부가 되었다고요.

전수민: 맞아요. 이곳은 원래 제가 혼자 살던 집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가 되었다는 게 아직은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권윤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인이 레스토랑을 오픈했다고 해서
축하해주고자 방문했죠. 그런데 마침 그 레스토랑 공간을
남편이 디자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전: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내일모레
다시 미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SNS 친구를 맺게 되고,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뉴욕에 출장이 있다고 하고 아내를
보러 갔어요. 그렇게 한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낭만적인 일화네요.

부부로서 함께 살아보니 어떤가요?

권: 아직 맞춰가는 중인 것 같아요. 이곳은 원래 남편이 혼자
살던 곳이다 보니 저는 남편의 생활 방식에 더 맞추려 하고,
남편은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두 분이 함께하는 청소 루틴 같은 것도 자리가 잡혔을까요?

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저는 디자이너, 아내는
개발자인데 둘 다 출퇴근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날 잡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이 나는 사람이 하는 편이에요. 둘 다 눈에 보이는 건
바로바로 치워야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소 루틴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윤서님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잖아요.

‘청소’하면 기억나는 브랜드가 있어요?

권: 미국에서는 크로락스를 정말 많이 써요. 저도 자취를
오래 했는데, 크로락스가 거의 라이프 세이버(Life Saver) 같은
존재였죠. 한 번은 미국에서 친구와 함께 살기로 하고 집을
구했는데, 룸메이트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짐을 들이기 전에
입주 청소를 해야 한다고 업체를 불렀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완전히 다른 집이 된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한쪽에는 빈 크로락스 통이 한가득 놓여있고요. 그때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미국에 크로락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유한락스가 있죠.

크로락스와 유사한 제품으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유한크로락스니까요.

수민님도 유한락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전: 어릴 적 본가에 살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두 분이 주말만 되면 유한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하셨죠. 락스 냄새가 난다는 건 화장실이 정말 새것처럼
깨끗해진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유한락스에 대한 기억은
좋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독립한 이후에도 욕실 청소가 자연스럽게 유한락스를
활용하게 되었나요?

전: 본가에서 부모님이 욕실 청소를 시키면 저도 유한락스를
쓰곤 했죠. 걸레를 쓰고 나선 소독할 용도로 락스에 담가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독립한 후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혼자 쓰기엔 용량도 좀 많은 것 같고, 얼마나 희석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제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스프레이 형태라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냄새도 덜 나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런데 효과는
그대로더라고요. 앞으로 손이 더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두 분에게 청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전: 직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디자인이라는 게
영감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영감을 재료라고 봤을 때, 그걸 요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늘 꾸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청소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삶을 이어 나갈
기반을 닦아 놓는 거죠.

권: 저는 개발자라서 그런지 효율성을 늘 우선으로 생각해요.
개발자는 가장 적은 코드로 가장 많은 일을 해낼 때가 가장
뿌듯하거든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행동으로
최고로 깨끗한 집을 만든다면 가장 기분이 좋고 또 청소가
잘 됐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한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같은 제품은 제 성향에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뜻해요.

두 분의 미래에 유한락스가 앞으로 어떤 브랜드로서 함께 했으면 하나요?

권: 청소라는 게 부모 혹은 주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브랜드가 이만큼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그만한 미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힘이 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유한락스가 받은 만큼 잘 돌려주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해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요.



*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잡념을 비워내는 시간

프리랜스 마케터이자 작가인 정혜윤은 혼자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홀로 꾸민 집은 '용지트'라는 애칭으로 수많은 팔로워의 사랑을 받고 있고, 회사로부터 독립해 홀로 일궈낸 것들은 지금의 그를 이루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그는 머릿속을 비워내고 앞을 조금 더 선명히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

@alohayoon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스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정혜윤입니다. 2020년부터 출근하는 삶에서 벗어나 홀로 일하고 있고, <퇴사는 여행>, <독립은 여행>, <오늘도 리추얼 : 음악,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 세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뉴스레터 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 시간 내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이 정말 멋져요.

2020년 4월에 제가 처음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쪽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딱 두 가지였거든요. 커다란 창문이 있고, 그 창밖으로 좀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집이 그랬어요. 정면에서 보면 아파트지만 책상이 있는 쪽에서 사선으로 바라보면 우거진 수풀이 보이죠. 그게 참 좋았고, 방이 여러 개인 것보다 커다란 하나의 공간을 원했던 것과도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믿는 편인데, 이곳은 처음부터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느껴졌어요. 노출 천장인 것도 재미있고, 벽지 색깔도 곳곳마다 달라서 특이하잖아요.

1인 가구로 산 지 벌써 2년 반이 넘은 거네요.

독립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됐나요?

계획한 독립은 아니었어요. 2019년 말에 제가 엄청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과 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서둘러 나왔다고 할까요? (웃음) 사실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혼자서 내 공간을 아지트처럼 꾸리고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기는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걸 되게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별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1년 사이에 관계, 집, 회사에서 다 독립하게 됐어요. 저는 이걸 독립 3종 세트라고 부르죠.

독립이라는 건 모든 걸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독립 후 처음으로 혼자 청소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사실 대학교에 다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혼자 청소한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과는 느낌이 다른 거죠. 뭔가 더 열심히 치우게 되고, 더 깨끗하게 치우게 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진짜 하루가 금방 가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나면 해가 저물어 있더라고요. 청소하면서 느꼈던 건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때그때 바로 치우기보다는 몰아서 치우기는 하지만요. (웃음)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하는 편이군요.
특별한 청소 루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 루틴이라기보다는 식물에 물 주는 루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요일마다 식물에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제대로 청소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어요.

그럼 청소용품을 고를 때에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품에 눈이 가겠어요.

제가 맥시멀리스트라 집에 크고 작은 물건들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그런 점에서 유한락스 세정살균티슈는 물티슈처럼 톡톡 뿜아 쓸 수 있고 구석구석 손으로 닦아낼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일반 물티슈와는 다르게 세정과 살균이 동시에 가능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요즘 살균력을 갖춘 물티슈형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유한락스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청소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이름이니깐 큰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이기도 한니까 그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믿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멈춰서 저 자신과 제 공간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시간이지요. 물건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은근히 자기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거나 정신 상태가 산만해지면 집을 어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가 되죠. 그런데 시간을 내서 방을 청소하면 복잡했던 문제도 단순해지고 다시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런 생각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머릿속을 비워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한락스가 어떤 브랜드로서 우리 곁을 지켰으면 하시나요?

한 브랜드가 4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건 충분히 제품의 기능이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브랜드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에 섬세하게 발맞추어 나가다 보면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함께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유한락스가 Q&A를 통해 화제가 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유한락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브랜드에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브랜드의 영향력을 더 좋은 쪽으로 행사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2UC' 대표

권광훈

나의 가장 작은 친구를 위하여

가구 브랜드 2UC를 운영하는 권광훈은 반려견 호두와 함께 살고 있다. 우연히 함께 살게 된 호두는 어느새 그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었고, 일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인 호두를 위해 매일같이 집을 나서는 권광훈 대표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관해 물었다.

@kwon_ho_du



오늘은 호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호두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나요?

호두는 유기견이에요. 지인이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 호두를 데리고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주인이 생길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새 정이 많이 들어서 차마 다른 집에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4년 정도를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호두를 저희 집에 데리러 오려고 가는 순간부터 ‘왠지 이 친구와는 평생 함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것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르던가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과 같죠. 물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친구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24시간 중 20시간 정도는 늘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귀찮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제일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죠.

집이 참 깨끗해요.

흔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나는 냄새도 없고요.

원래 청소를 좋아해요. 매일 아침 청소기를 돌리죠. 기본적으로 집안을 어지르거나 뭔가를 너저분하게 놔두는 성격은 아니에요. 호두랑 살게 되면서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청소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 이렇게 넷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빠곤 다 남자다 보니 어머니 혼자 늘 청소로 고군분투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집에 오면 늘 청소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셨죠. (웃음) 그 영향으로 저도 청소 습관이 몸에 배게 된 것 같아요.

청소에 있어, 호두를 위해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나요?

호두가 항상 장난감을 몰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소파나 카펫, 쿠션 위에서 장난감이 뒹굴 때가 많은데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줘도 침 냄새나 얼룩 같은 것이 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유한락스 펫 메스 리무버를 사용하면 편리하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행주를 소독할 때 유한락스를 사용하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유한락스라는 브랜드 자체는 너무 친숙했는데, 이렇게 펫 전용 제품이 나와 있는지는 몰랐어요. 앞으로 호두 주변의 물건에 묻은 얼룩이나 냄새를 제거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위해 유한락스에서 새롭게 출시되었으면 하는 제품이 있나요?

강아지는 샤워나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 탈취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호두도 2주에 한 번씩 샤워를 하는데, 배변 때문에 매일 밖을 나가야 하는 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탈취제 혹은 샴푸나 린스가 나오면 자주 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펫 메스 리무버도 탈취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에 직접 분사하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많은 반려동물 가구들이 유한락스라는 브랜드에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요?

광훈 님의 삶에 청소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언젠가부터 청소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옷장에 있는 옷을 전부 꺼내서 옷 정리를 하거나 가구를 재배치하면서 평소에 안 보이던 먼지들을 한 번씩 깨끗하게 치우는 시간을 가져요. 앞으로도 청소의 힘을 좀 빌리려고요.



앞으로 2UC를 통해 어떤 것들을 보여줄 계획인가요?

지금까지는 모듈형 가구를 주로 만들어 보여드렸다면, 앞으로는 다른 스타일의 가구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과정에 있어요. 규모를 키우기보단 분야를 넓힌다고 할까요. 쇼룸을 오픈하면서 여러 전시나 팝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카페 등 상업 공간의 가구 디렉팅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어요.

호두를 위한 가구를 만들어볼 생각도 있다고요.

호두가 집이 아직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서, 이럴 거면 내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반려동물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니까 2UC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브랜드를 이끄는 대표로서, 유한락스라는 장수 브랜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한락스에 비하면 2UC는 너무 작은 브랜드라, 제가 뭘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다만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과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되,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어떨까 싶은 바램은 있어요. 예를 들면 친환경도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최근 유한락스 고농축 리필형이라고, ESG를 고려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처럼 유한락스 같은 브랜드에서 좋은 선례를 보여준다면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위안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ARKETING

유한락스 광고 변천사

현대에 이르러서는 브랜드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TV 광고나 신문 지면 광고가 유일한 플랫폼이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한락스 광고를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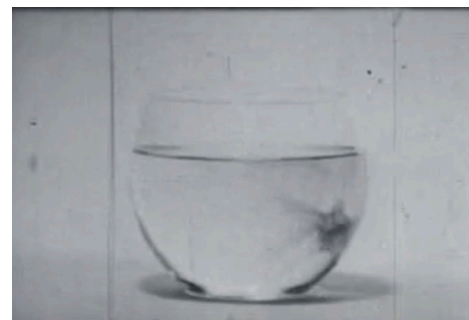
1970s

유한락스 최초의 광고



〈청소하는 여자〉 (1977)

TV광고



〈어항〉 (1978)

TV광고

● 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주국방

언제나 깨끗한 우리집



유한락스는 산소로 살균·소독하고 냄새도 없애주며 표백도 하는 새로운 제제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사부에서 식품첨가제!

↓로 인가하고 질병예방과 가정위생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일·야채 / 생선 씻을 때
유한락스를 탄 물로 이차·과일이나 생선류 씻으면 묻어 있는 각종 세균을 살균하고 증한도 떨어지게 하며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냉장고의 소독과 냄새제거
음식재료의 냄새가 배어있는 냉장고에 유한락스를 탄 물로 약아래면 냄새를 없애 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세균도 살균해 줍니다.

천옷을 빨 때
면내의·원마·꽃이불·기저귀·환고복 같은 면으로 된 천을 유한락스를 탄 물에 빨면 새이렇게 표백이 되고 얼룩도 없어집니다.

행주·걸레 빨 때
세균의 은신처를 수 있는 행주나 걸레를 유한락스를 탄 물에 빨아쓰면 완전살균이 되어 냄새도 없어지고 어떻게 표백도 합니다.

도마·식기·술(주방기 구) 소독에
수돗물 세균이 서식하기 쉬운 도마나 술을 유한락스를 탄 물로 씻으면 간단히 살균소독이 되어 냄새도 없어집니다.

화장실의 냄새제거·누렇게 된 욕조·타일 닦을 때
유한락스를 탄 물로 닦고 청소하면 화장실의 냄새제거는 물론 방한균도 살균해 주어 누렇게 된 욕조나 타일은 깨끗해 집니다.

쓰레기통·축사·하수구의 냄새제거에
유한락스를 탄 물로 고루 뿌리면 악한 냄새가 없어지며 각종 세균도 살균해 집니다.

유한락스 희석액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다른 세제와 혼용하여 써도 좋습니다.

유한락스는
가까운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있습니다.
1,000ml(1,150원), 500ml(700원), 200ml(400원)
합성세제가 아닙니다.

살균·소독/표백/악취제거에
유한락스®

판매처
株式会社 77 幸屋 3 幸屋
서울·종로구 대방동 49-6

COROX

제 조 원
株式会社 코락스
仁川市 瑞 瑞 瑞 215-7

〈깨끗한 우리집〉(1978)

지면광고



〈4개의 창문〉(1979)

TV광고

유한락스
 유한락스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각종 세균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입니다. 행주 하나에 100만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행주나 도마, 식기 등 주방용구나 생크래, 찬장, 냉장고, 화장실 집안 구석구석 세균이 번식할만한 곳이라면 꼭 유한락스를 사용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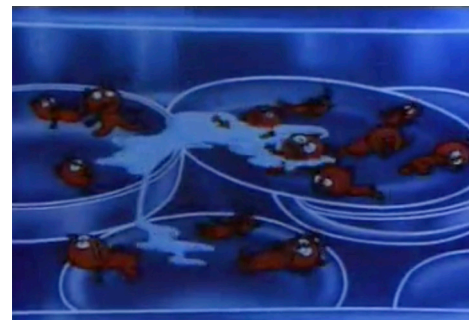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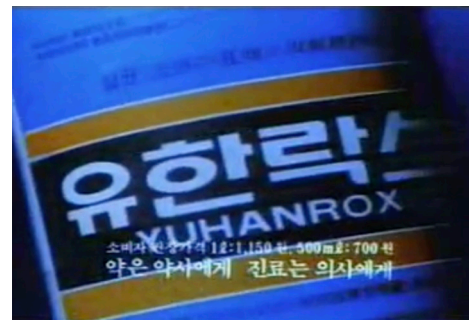
세균에 대한 산소폭탄 - 유한락스
 유한락스는 세균에 대해서는 산소폭탄과 같습니다. 이것을 물에 타면 순간적으로 산소(O)가 생겨나서 살균·약취제거·표백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유한락스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산소소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식품첨가제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을 위해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살균·소독/표백/약취제거에 유한락스
 유한락스는 한국의 유한미강, 연세집, 조애상이나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한락스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세균의 도전〉 (1982)

지면광고



〈음식 찌꺼기〉 (1982)

TV광고



〈집〉(1987)

TV광고



〈유한락스 후레쉬-좋은 향기〉(1989)

TV광고



〈유한락스-깔끔한 주부〉(1993)

지면광고



〈유한락스-악취제거〉(1999)

TV광고

〈유한락스-여름철 살균 전쟁〉 (2006)

지면광고

〈유한락스-신종인플루엔자〉 (2009)

지면광고



〈조승연의 탐구생활, 청소와 빨래의 역사〉 (2022)



〈WOW〉 (2022)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리필형 신제품 광고〉 (2022)



〈유기동물 입양 응원 캠페인 with 포인핸드〉 (2022)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증량팩 프로모션〉 (2022)

APPENDIX



CATALOG

유한락스 제품 집중 분석

이름에 락스가 들어간다고 락스 제품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상황과 용도,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고루 고려한 유한락스의 제품 라인업을 알아보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헛갈릴 때 참고하면 좋다.

유한락스 레귤러

락스의 원조이자 유한락스의 대표 상품.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은 만큼 과일과 야채를 살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싱크대 및 조리대 살균, 의류 소독과 표백, 욕실 청소에도 사용할 수 있어 '만능 집안일 도우미'라 불린다. 미국에서는 100년간, 한국에서도 이미 40년간 사용해온 역사 깊은 제품이다.

#원조 #만능 집안일 도우미 #100년



유한락스 후로랄 · 유한락스 후레쉬

유한락스 레귤러와 동일한 성분의 락스 제품이지만, ‘후로랄’과 ‘후레쉬’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각각 싱그러운 꽃향기와 상쾌한 풀내음이 추가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락스 특유의 수영장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유한락스 후로랄과 후레쉬를 사용해보기 바란다.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제품 모두 유한락스 레귤러와 달리 과일, 야채 등의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락스에도 향기가 있다 #식품에는 사용 금지!



흰옷 표백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으로도 표백은 가능하지만, **흰옷 표백 전문 제품에는 수질에 의한 황변 방지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 황변 현상의 고민을 덜 수 있다.** 또한 기존 유한락스 제품과 마찬가지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거쳐 신체에 직접 닿는 의류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장점. 그러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 가능 의류를 확인해야 한다.

#흰옷 전문 #황변은 이제 그만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유한락스 락스와 세제 다목적세정용 · 고농축 다목적세정용

많은 소비자가 헛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락스에는 세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락스의 주 용도는 살균과 소독. 그러나 여기에 세정 기능을 합한 제품이 바로 다목적세정용이다. 주로 욕실 바닥과 변기, 타일 사이 곰팡이 제거에 사용되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젤형과 노즐 타입으로 제작되었다. 고농축 제품의 경우 2배 강해진 점도로 접촉 시간이 증가하여 더욱 확실한 살균 효과를 보장한다.

#고농축 #강력한 세정 효과 #노즐 타입



유한락스 락스와 세제 바닥청소용

유한락스 레귤러로도 바닥을 청소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바닥청소용이 따로 출시된 이유는 **젤 타입으로 만들어져 희석의 번거로움을 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유한락스에는 없었던 세정 성분이 추가되었으며, 욕실 바닥뿐만 아니라 베란다 바닥 청소에도 용이하다. 욕실의 타일 벽면과 욕조, 세면대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희석 없이 바로 #욕실 #베란다



욕실청소용 · 곰팡이제거제

욕실 찌든 때에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욕실청소용. 분무기형 제품으로, 분사 시 풍부한 거품이 발생되어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욕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곰팡이는 보기에 안 좋은 것은 물론 악취까지 유발한다. 이때 곰팡이제거제를 사용하면 은은한 꽃향기와 더불어 곰팡이를 99.9%까지 제거할 수 있다.

#욕실 어벤저스 #환상의 짝꿍



직접 바르는 곰팡이젤

직접 바르는 곰팡이젤이 스프레이형 곰팡이제거제와 다른 점은 초록색 젤 형태로 제작되어 바른 곳과 청소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오염 부위를 더욱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 **타일 사이와 실리콘 위 등 청소하기 힘든 곳의 곰팡이까지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곰팡이 킬러 #초록색 #국소 부위 공략



펄크린

배수관 청소에는 펄크린 제품을 사용할 것. **배수관 속 영킨 머리카락으로 인한 막힘 현상을 해결하고 악취를 말끔히 제거한다.**

또한 배수관 부식 방지제가 첨가되어 있어 배수관 파이프와 정화조의 손상 걱정을 덜 수 있다.

#배수관 #악취 제거 #부식 방지



세탁조 세정제

세탁을 해도 세탁물에서 냄새가 나고, 세탁기 안에서도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면? 그렇다면 옷이 아닌 세탁조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탁조 전용 세정제. **세제 찌꺼기와 물 때, 악취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수 부식방지 성분으로 세탁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세탁조의 청결한 유지를 위해 1~2개월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기 #악취 제거 #부식 방지



도마행주용

그동안 도마와 행주를 삶는 방식으로만 살균해 왔다면 도마행주용 제품을 사용해보자. 제품을 물에 희석하고, 살균이 필요한 도마나 행주를 충분히 접촉시킨 뒤 간단하게 행구기만 하면 99.9% 살균과 세정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고, **비브리오,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도마와 행주 #식중독균 제거



주방청소용 · 렌지후드 세정제

주방의 적은 바로 오랜 시간 축적된 기름때. 주방청소용은 이러한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상큼한 사과 향으로 주방에 찌들어 있던 누린내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만약 더 강력한 세정 효과를 원한다면 렌지후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방청소용 대비 4배 강해진 세정력을 보여주며,** 락스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 냄새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방 어벤저스 #기름 때&찌든 때 완벽 해결!



락스 성분
무첨가

펫 메스 리무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라면 주목할 것. **펫 메스 리무버**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나 분비물로 인한 냄새와 얼룩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락스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 특유의 살균 냄새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매트리스, 카타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고양이 화장실 모래나 실크와 가죽 등 물 세탁이 불가능한 섬유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 #냄새와 얼룩 #직접 분사는 NO!



락스 성분
무첨가

세정살균티슈

청소할 시간은 없지만 세정과 살균 효과를 얻고 싶다면 세정살균티슈를 권한다.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검증해 그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으로, **거실과 사무실,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곳에서 딱 한 장으로 쉽고 간편하게 찌든 때를 제거할 수 있다**. 단, 얼굴 및 신체와 음식이 닿는 식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트러스 블렌드, 오렌지 퓨전, 후레시 센트 중 원하는 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세정과 살균을 동시에 #한 장으로 OK #3가지 향



락스 성분
무첨가

고농축 리필형 욕실청소용 · 주방청소용

욕실청소용과 주방청소용 제품의 강력한 세정력은 유지하되, **플라스틱 배출량을 72% 줄인 제품**. 빈 용기에 물과 리필 용액을 넣어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

#고농축 #친환경 #변함 없는 세정력

락스 성분
무첨가



LINE-UP 한눈에 보는 유한락스⁺

락스계

유한락스 대표라인



유한락스 레글러
채소/야채 살균가용

유한락스 후로발

유한락스 후레쉬

원옷 표백

흰옷을 하얗게! 황변방지제 첨가

젤 Type

락스와 세제

최적없이 바로 쓸 수 있어요!



유한락스
락스와 세제
다목적세정용

고농축
다목적세정용

바닥청소용

스프레이 Type

육실청소 필수 Item!



육실청소용

곰팡이제거제



직접 바르는
곰팡이제거제
곰팡이가 있는 곳에
짜서 쓰세요



핑크린
막힌 배수구 평!



세탁조 세정제
세탁기 & 세탁물
냄새 해결!



도마행주용
도마와 행주를 삶는 듯이

비락스계 락스 성분은 없다고?

주방청소 필수 Item!



주방청소용
주방의 기름때 & 찌든 때

렌지후드 세정제

펫 메스 리무버
반려동물에 의한
냄새 & 얼룩 제거!

세정살균티슈

쓱쓱깨끗!



세정살균티슈
시트러스 블렌드
집안 곳곳의 세정과 살균을 쉽고 간편하게!

세정살균티슈
오렌지 퓨전

세정살균티슈
후레시 센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고농축 리필형 육실청소용 · 주방청소용







*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유한락스 독실정소용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WHITE BOOK

by 유한락스

2022년 10월 8일 초판 1쇄 인쇄

PLANNING

프로젝트 총괄

박종현, 최승한

@유한크로락스

프로젝트 책임 및 기획

김춘재

@유한크로락스

프로젝트 담당

권혁빈

@유한크로락스

프로젝트 검토

유한크로락스 연구실

@유한크로락스

EDITORIAL

펴낸곳

어반복스

펴낸이

이윤만

편집장

김태경

책임 디렉터

오지수

비주얼 진행

김현의

자료 정리

하수민

세트 스타일링

이연의

일러스트

이인아

사진

맹민화

디자인

kontaakt



이 책은 FSC인증 받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PUBLISHING

REGISTRATION NUMBER 제2021-000095호

REGISTRATION DATA 2009년 10월 14일

(주) 어반복스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40 B동 328호

이 책의 글과 그림, 사진 등의 모든 내용은
유한락스와 어반복스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INTED IN SEOUL

ISBN 979-11-89096-33-5 (12590)



유한락스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YUHANROX.CO.KR





THE WHITE BOOK
by 유한락스

ISBN 979-11-89096-33-5 (12590)
13,000 KRW



1 2 5 9 0

9 791189 096335